

# 강원고성신문 주최 긴급좌담회 ‘속초지역의

# “명분없는 통합 절대 반대”



이영일 고성군번영회장

속초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최근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의 통합을 건의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18일 채용생 속초시장에게 2,480명이 서명한 통합건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속초시는 조만간 이를 강원도에 전달하고,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지역도 어쩔 수 없이 통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속초지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고성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3일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함명준 고성군의회 부의장

△사회(최광호 편집국장)= 지금부터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군 통합 문제는 고성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토론 진행은 패널 한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반론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거나 갑론을박이 심할 경우 사회자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칙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군번영회 이영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고성군시장단협의회장

### 기본적인 원칙 또는 생각

△이영일 고성군번영회장= 우선 속초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 우리 고성은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통합할 수 없는 여건이 너무나도 많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군이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도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이영일 회장님께서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인근 양양군의 경우 범군민통합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공식적인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이영일= 며칠 전에 군 단위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90% 이상이 반대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일 내에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덕용 고성군시장단협의회장= 4개 시·군 통합에 대해서 양양이나 인제도 빨리 움직였지만, 우리도 약 1개월 전부터 번영회와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JC, 군의회 등이 벌써 다섯 번 정도 모임을 가졌다. 사태 추이를 보가면서 진행하지는 의견 때문에 다소 늦어졌지만, 조만간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고성군민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상태다.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리적 행동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회단체 쪽에서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반대 활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성군의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함명준 고성군의회 부의장= 고성군의 회에서도 뜻을 모았다. 전체 의원들이 반대한다. 지역단체들과 적극 결합해서 뜻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속초시에서 먼저 통합을 들고 나왔는데, 사전에 우리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통합이라는 식으로 나와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이 되더라도 무엇이 좋아질지 모르겠다. 잡히는 게 없다.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반대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마침 장날이었는데요, 간성재래시장 상인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황화선 간성재래시장번영회장= 저희



지난 23일 고성군주민협의회에서 열린 통합관련 긴급좌담회 모습.

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주민들이 속초로 많이 나가는데, 통합된다고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조만간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서 반대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 젊은 층을 대표해서 박정훈 고성청년회의소 회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부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최준헌 상임부회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준헌 고성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저희도 안건을 내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하신 여러 회장님들 말씀에 동의한다고 보시면 된다. 앞으로 반대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단체 반대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회=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와 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외지에 나가 사시다가 최근 고향으로 귀농하신 김용자씨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김용자 귀농인= 저는 원래 고향이 이곳인데 외지에 나가 결혼해서 살다가 귀농을 했다. 처음에는 4곳을 놓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같이 내려오시기로 한 분들도 고성군을 택해서 흔쾌히 내려오게 됐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이다. 만약에 통합이



황화선 간성재래시장번영회장